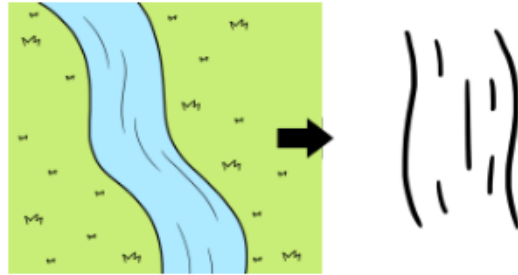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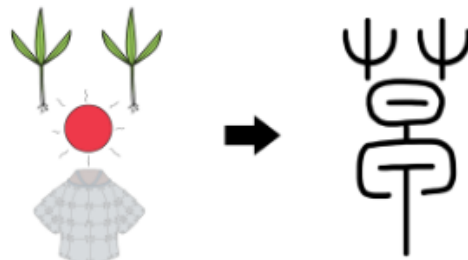
상형문자①



시내나 하천을 뜻하는 川자는 갑골문에서부터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는 글자이다. 川자는 물이 굽이쳐 흐르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하천을 따라 흐르는 물이 잘 표현되어있다. 사실 '물'을 뜻하는 水(물 수)자와 𣶒 '하천'을 뜻하는 川자의 𣶒 갑골문을 보면 모두 물이 흐르는 하천이 그려져 있었다. 다만 水자는 물의 성질이나 특성과 관련된 글자로 쓰이는 반면 川자는 하천의 특징과 관련된 글자에 쓰인다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川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물길'이나 '따라 돌다'라는 뜻을 전달하게 된다. 참고로 川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𣶒자로 바뀐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형성문자①



草자는 '풀'이나 '황야', '초고'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草자는 艹(풀 초)자와 屮(일찍 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이미 풀을 뜻하는 글자로써 艹(풀 초)자가 있지만 주로 부수 역할로만 쓰이고 草자는 단독으로 '풀'을 뜻할 때 사용되고 있다. 草자에 쓰인 屮자는 뜻과는 관계없이 '조→초'로의 발음역할만을 한다. 草자가 흔해 빠진 '풀'을 뜻하다 보니 '영성하다'나 '보잘것없다'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다.

소전	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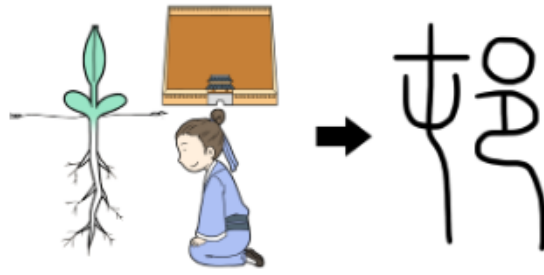
川

내 천

草

풀 초

형성문자①



村

마을 촌

村자는 '마을'이나 '시골'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村자는 木(나무 목)자와 寸(마디 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寸자는 손가락의 마디를 뜻하지만, 씨족집단으로 구성된 농촌사회를 뜻하기도 한다. 그런데 소전까지만 하더라도 屯(진 칠 둔)자와 畝(고을 읍)자가 결합한 邨(마을 촌)자가 '마을'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邨자는 '마을에 주둔하다'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해서에서부터는 '씨족 공동체'라는 의미의 村자가 '마을'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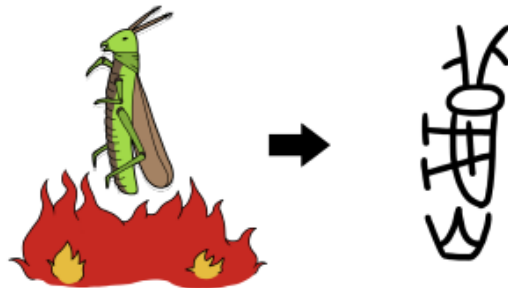
邨

소전

村

해서

회의문자①



秋

가을 추

秋자는 '가을'이나 '시기'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秋자는 禾(벼 화)자와 火(불 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래서 秋자는 가을에 곡식이 익어가는 모습을 火자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곤 했다. 그런데 秋자의 갑골문을 보면 禾자가 아닌 메뚜기가 𪎭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메뚜기를 구워 단백질을 보충하던 시기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본래 '가을'은 메뚜기를 구워 먹는 계절이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소전에서 메뚜기가 아닌 禾자가 쓰이면서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뜻하게 되었다.

𪎭

갑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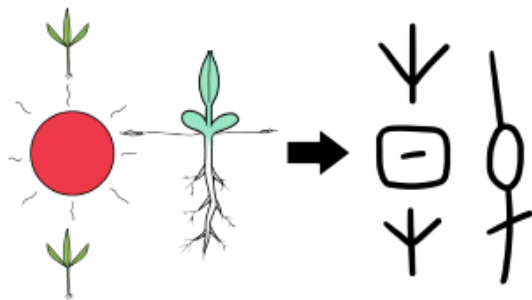
𪎭

소전

秋

해서

회의문자①



春

봄 춘

春자는 '봄'이나 '젊은 나이', '정욕'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春자는 日(해 일)자와 艸(풀 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春자의 갑골문을 보면 艸자와 日자, 屯(진칠 둔)자가 함께 그려져 있었다. 여기서 屯자는 새싹이 올라오는 屯(진칠 둔)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러니 갑골문에서의 春자는 따스한 봄 햇살을 받고 올라오는 새싹과 초목을 함께 그린 것이다. 그러나 해서에서는 모습이 크게 바뀌면서 지금의 春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春자는 단순히 '봄'이라는 뜻 외에도 사람을 계절에 빗대어 '젊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욕'이나 '성(性)'과 관련된 뜻도 함께 가지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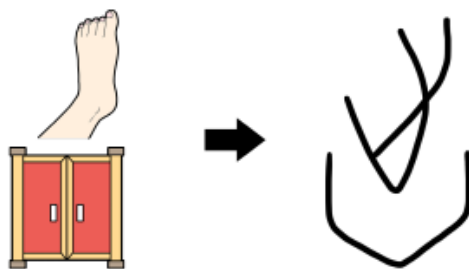


소전



해서

상형문자①



出

날[生]
출

出자는 '나가다'나 '떠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出자는 사람의 발이 입구를 벗어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出자의 갑골문을 보면 움푹 들어간 것 위로 발이 止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발이 입구를 나왔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出자는 이렇게 출구를 나오는 모습으로 그려져 '나가다'나 '떠나다'라는 뜻을 표현했다. 후에 형태가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본래는 입구에서 발이 나오는 모습을 그린 것이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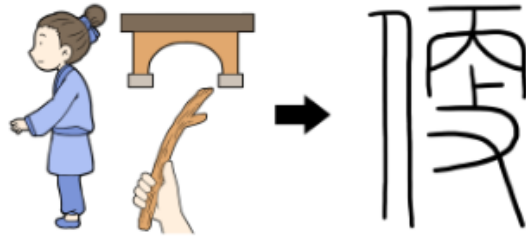
소전



해서

7
-
47

회의문자①



便

편할 편/
똥오줌
변

便자는 '편하다'나 '똥오줌'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便자는 '편하다'라고 할 때는 '편'으로 '똥오줌'은 '변'으로 발음을 구분한다. 便자는 人(사람 인)자와 更(고칠 경)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更자는 탁자와 채찍을 함께 그린 것으로 '고치다'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고치다'라는 뜻을 가진 更자에 人(사람 인)자를 더한 便자는 사람이 불편해하는 것을 바로잡는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불편해한다는 것은 대소변을 의미한다. 그래서 便자는 본래 '똥오줌'을 뜻했었다. 참았던 대소변이 해결하게 되면 몸과 기분이 편해질 것이다. 그래서인지 便자는 후에 '편하다'라는 뜻도 갖게 되었다.

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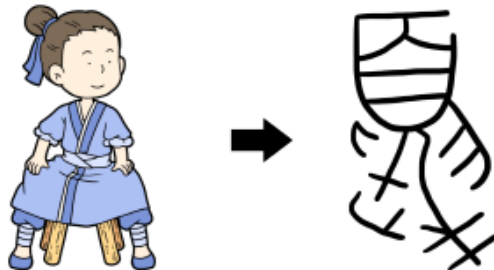
소전

便

해서

7
-
48

회의문자①



夏

여름 하

夏자는 '여름'이나 '중국'을 뜻하는 글자이다. 夏자는 頁(머리 혈)자와 夊(천천히 걸을 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夏자의 금문을 보면 頁자에 손과 발만 함께 夊 그려져 있었다. 夏자는 본래 중국 한족(漢族)의 원류인 화하족(華夏族)을 뜻했던 글자였다. 하(夏)나라는 기원전 2,070~1,600년경 우왕(禹王)이 세운 중국의 고대 왕조를 말한다. 상(商)나라 이전 수백 년간 존재했다고 기록된 나라다. 하나라를 중국의 시조로 보기 때문에 지금도 夏자는 중국이나 중국인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夏자가 왜 '여름'을 뜻하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화하족의 문화와 관련됐거나 단순히 여름을 뜻하기 위해 글자를 빌려온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夏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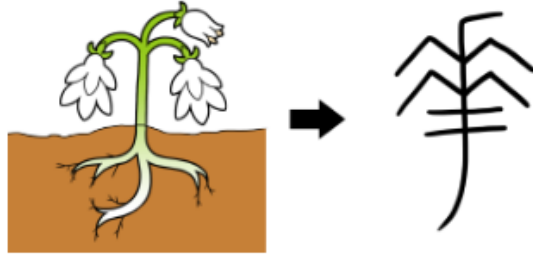
夏

소전

夏

해서

형성문자①



花

꽃 화

花자는 '꽃'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花자는 艹(풀 초)자와 化(될 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化자는 '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본래 소전에서는 땅속에 뿌리를 박고 꽃을 피운 모습을 그린 𠂔(꽃 화)자가 '꽃'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지금의 花자가 모든 '꽃'을 통칭하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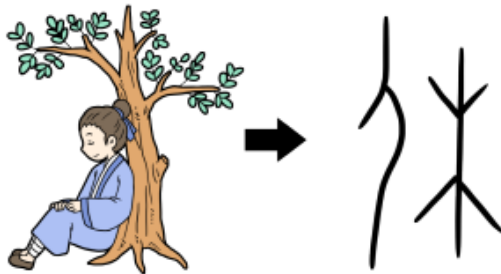
𠂔

소전

花

해서

회의문자①



休

쉴 휴

休자는 '쉬다'나 '멈추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休자는 人(사람 인)자와 木(나무 목)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木자가 나무를 그린 것이니 여기에 人자가 더해진 休자는 사람이 나무에 기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갑골문에 나온 休자 역시 나무에 등을 기대고 있는 사람이

休 그려져 있었다. 그늘에 기대어 쉬고 있다는 것은 일을 멈추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休자는 '쉬다'라는 뜻 외에도 '그만두다'나 '중지하다', '멈추다', '사직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𠂔

갑골문

休

금문

休

소전

休

해서